

2017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경상북도 경주시
- 양남지역아동센터



2017. 7

낮선 지역에 와서 새로운 아이들을 만나며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명의 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이들도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와주고 봉사자들이 준비한 프로그램도 열심히 참여해 주어서 다 같이 고생하며 준비했던 프로그램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저에게는 두 번째 이화봉사단 이었는데 짧은 만남에 대한 아쉬움이 커서 이화봉사단을 하는 것에 대해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봉사자들과의 만남, 아이들을 위해 다 같이 프로그램을 준비했던 과정, 지역 센터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은 결코 짧지 않았고, 마음속에 긴 여운이 남아 소중한 추억으로 오래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도 이화봉사단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날 준비한 아이스 브레이킹과 종이접기 활동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자 아이들은 쉽게 심심해하고 지루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더욱 철저히 프로그램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여 매일 저녁 팀원들과 모여 회의를 통해 예상 시간을 초과하여 다음 날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저희가 최대한으로 준비해야 예상 밖의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아이들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놀아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여 뒤에 예정된 프로그램을 다음 날로 미루면서까지 시간을 연장한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소개할 때마다 아이들은 말로는 이미 다 해봤다고 재미없다고 했지만 막상 시작하면 집중해서 열심히 참여해주어 고마웠습니다. 아이들은 저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각자의 걱정 인형을 만들고, 부직포 가슴기를 꾸며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서로는 센터에서 매일 보는 익숙한 친구들이지만 이화봉사단과 함께 처음으로 바다도 놀러가고 서로에게 그동안 하기 어려웠던 말을 롤링페이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어느새 정이 들어서 활동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화봉사단은 활동비가 지원되어 편안하고 여유롭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펠러비즈 만들기는 자비로 재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활동이지만 지원금 덕분에 넉넉히 재료를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의 선생님께서도 펠러비즈는 금액 때문에 센터에서 하기 어려웠는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여 저희가 준비한 재료를 남겨두고 가면 다음에도 펠러비즈 만들기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재료비뿐만 아니라 활동비를 교통비, 식비, 숙박비로 감당하니 경제적인 부담 없이 편하게 봉사활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곽*선

대학 입학 후 처음 맞는 여름방학에 이화봉사단 활동을 한 것은 저에게 참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전공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봉사활동을 위해 모여 계획하고,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프로그램을 위해 고생하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알 수 있었으며, 저희 봉사단원들도 아이들이 최대한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봉사단원들과 봉사기간동안 매일 밤을 지새우며 회의했던 기억, 다음날 만들기 샘플을 준비하며 웃었던 기억 등 봉사기간 동안의 추억들이 저의 인생에 참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4박5일이 길다고 생각되어 걱정도 했었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기간이 짧게 느껴져 아쉬기도 했습니다. 첫날에는 낮을 가리며 보이지 않는 선을 그었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프로그램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저희 봉사자들에게도 정답게 말을 걸어주어 참 기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모두 순하고 너무 착해 센터에 있는 내내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 센터에 있지만 아이들의 나이가 모두 다르기에 아이들끼리 갈등이 혹여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도 했었지만, 아이들은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헤어질 때에는 정말 마음이 아팠고, 아이들이 미래에 서울로 온다면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바람도 듭니다. 이번 이화봉사단 활동은 겨울 이화봉사단으로 양남에 다시 가고 싶을 정도로 저에게는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하며 우리 이화봉사단원들, 그리고 양남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과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만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학교에 들어오자마자 이화봉사단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정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계획하고, 수정하고, 활동을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봉사단원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과 경주에서 함께 했던 4박 5일이 올해 여름의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습니다.

첫날에는 서로 낯설고 프로그램 진행도 어려웠지만 프로그램이 끝난 후 매일 사전 회의를 하며 점점 더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직접 아이들을 겪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점들을 생각하며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항상 생각했던 것을 뛰어넘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보여주며 프로그램에 잘 참여해주어서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또한 이번 봉사활동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해갔던 여러 활동들이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는 방학을 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낯을 가리던 아이들과도 서울로 떠날 때에는 모두 정이 많이 들어 아쉬웠습니다. 다음에도 이화봉사단에 참여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었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먼저 이번 봉사활동을 위해 모든 팀원들이 함께 열심히 준비한 만큼 프로그램들을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낮선 지역에서 낮선 아이들을 만난다는 것이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고 긴장도 됐지만, 여러 활동들을 같이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과 가까워지고 정이 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무더운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센터 아이들이 이번 봉사활동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즐겁게 방학을 지내는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5일간 머물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교육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는 하기 쉽지 않지만 이화봉사단을 통해 선후배, 동기 팀원들과 다 같이 프로그램에 임할 수 있어 저에겐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주어진 활동을 수행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직접 사전 회의를 통해 새롭게 일정을 짚기 때문에 아이들이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팀원 선생님들 모두가 만족스러운 봉사활동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5일이라는 시간이 처음엔 길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막상 마무리해야 할 때가 왔을 땐 이제 아이들과 정이 들었는데 헤어지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뜻 깊고 기억에 남을 만한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강*예

이번 봉사단은 처음 팀장으로서 이화봉사단원을 이끌고, 센터와의 연락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처음 센터에 도착하여, 아이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낯을 많이 가리고, 정을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많이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은 처음이었기에 많은 준비가 되지 않아 시간이 남고,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껴 저희 봉사단은 이후 밤마다 다음 날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준비회의를 했고, 그 이후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화 봉사단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준비해 나간 과정이 의미가 컸다고 생각 됩니다. 아이들은 남녀 노소 자신의 개성과 창의력을 표현할 수 있는 만들기 활동을 많이 좋아했고, 남다른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채육 활동에 있어서는 공정성이 요구되고, 승부욕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 이를 중재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편안한 숙박 시설과, 밥 그리고 차량을 제공해 주신 센터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아이들과 눈 맞추며 열심히 소통하고 추억을 쌓아준 이화봉사단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열심히 잘 따라주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준 아이들에게도 고맙습니다.